

마에다 가문의 지보: 손케이카쿠 문고

'손케이카쿠 문고'는 1583년부터 1871년까지 가가번(현재의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)을 통치했던 부유한 마에다 가문이 수집한 고서적, 고문서, 갑옷, 진바오리, 그림 등의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시설로, 이시카와현립미술관의 '마에다 이쿠토쿠카이 손케이카쿠 문고 분관'에서는 그 중에서 염선된 물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'

손케이카쿠 문고의 1만점이 넘는 소장품은 도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. 마에다 가문은 역사적으로 가나자와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시카와현립미술관에서는 소장품 중 약 400점의 미술공예품에 대해 소장 및 전시가 허가되어 있습니다.

역사적 배경

마에다 가문은 에도 시대(1603~1867) 초기에 쇼군 가문에 벼금가는 재력을 자랑하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유력 다이묘였습니다. 마에다 가문은 그 풍부한 자산을 예술진흥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많은 우수한 공예품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. 손케이카쿠 문고의 소장품 대부분은 제3대 번주 마에다 도시쓰네(1594~1658)와 그의 손자인 제5대 번주 마에다 쓰나노리(1643~1724)가 수집한 것들입니다.

역사적으로 마에다 가문의 소장품 일부는 에도(현재의 도쿄)에 있던 마에다 가문의 저택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. 에도 시대에 막부는 각 다이묘들에게 1년마다 교대로 에도에 거주하도록 하는 '산킨코타이(참근 교대)'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각 번의 다이묘들은 자신의 번과 에도 2곳에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. 이 때문에 1867년 막부가 멸망했을 당시 소장품 일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. 가나자와 저택에 남아 있던 나머지 소장품들은 마에다 가문이 메이지 시대(1868~1912)에 도쿄로 이주하게 되면서 함께 도쿄로 옮겨졌습니다.

마에다 이쿠토쿠카이는 마에다 가문 제16대 당주인 마에다 도시나리(1885~1942)가 마에다 가문의 소장품을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1926년에 도쿄에 설립했습니다. 손케이카쿠 문고에는 국보 22점과 중요문화재 77점이 포함되어 있는데, 단일 가문 소장품으로는 경이적인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. 도쿄에 보관된 품목들은 대부분 매우 오래되고 귀중한 고문서로, 열람은 연구자에게만 허용됩니다. 이시카와현립미술관에 있는 마에다 이쿠토쿠카이 손케이카쿠 문고 분관에서만 일반에게 공개됩니다.

마에다 이쿠토쿠카이 손케이카쿠 문고 분관

이시카와현립미술관 내에 있는 이 전시실에서는 전시 주제에 따라 그림, 무구, 노가쿠용 의상, 차도구 등을 매월 교대로 전시하고 있습니다. 전시품에는 마에다 가문에서 전해 내려온 갑옷과 투구, 진바오리, 가가상감 기법으로 제작된 등자(안장 양옆에 매달아 뱀을 걸 수 있는 도구), 차도구, 산수화, 서예작품 등이 있습니다. 극히 드물지만, 희귀한 공예 표본 소장품인 ‘핫코히쇼’가 전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이곳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무사 가문이 자랑하던 명품들을 최상의 보존상태로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.